

# 한 겨울에도 양파 생산 길 열렸다

### 해남 농기센터 11월부터 3월 출하 재배법 개발

### 봄 양파보다 싸게 팔려 2배 이상 농가 소득도

한겨울에도 양파생산을 할 수 있는 재배법이 개발돼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 농업기술센터는 겨울철인 11월 하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 양파를 생산할 수 있는 재배 기술을 개발했다.

해남 농업기술센터는 6월에 마늘 크기 정도의 양파를 생산, 저장한 다음 8월 하순에 이를 다시 정식(定植)해 11월 하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 출하하는 재배법 개발에 성공했다. 현재 옥천면 흑천리 운주석씨 1천㎡ 밭에서 재배 실증시험을 거쳐 양파를

생산하고 있다.

겨울 양파는 10a당 5천kg이상의 생산량을 기록해 봄에 수확하는 조생종 양파와 비슷한 수확량을 기록했다.

그동안 겨울철 양파생산은 여러 차례 시도됐으나 품질이 떨어지고 수량이 적어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

특히 겨울 양파는 kg당 500원 이상 가격에 판매돼 봄철 양파보다 2배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신선도와 품질면에서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생산된 양파는 전량 광주

급식업체에 공급됐다.

해남군 농업기술센터는 내년부터 옥천과 계곡면 일대 1만여㎡에서 겨울 양파를 생산해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황보인식(49) 해남군 옥천 농민상담소 지도사는 “밤 호박 재배 후 놀리는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 겨울철 양파재배를 시도하게 됐다”며 “기존 양파보다 비싼 가격에 팔리고 소비자 선호도도 높아 소득원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 보성 검백 하덕마을 범죄없는 마을 선정

보성군 검백면 은덕리 하덕마을이 '2006년도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됐다.

지난 1980년부터 1988년까지 9년 연속 범죄없는 마을로 뽑혔던 하덕마을은 1999년에 이어 11번째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하덕마을에는 주민숙원 사업비 1천500만원이 지원돼 주민 센터인 우산각이 신축됐다.

한편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이 열린 지난 5일 한화석 유희학과 한화 한마을 연합 봉사대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 수상의 기쁨을 더했다.

/보성=안구일기자 gjahn@



“차 예절 재밌어요” 지난 7일 보성 서면재 보성소리전수관에서 열린 '제 1회 학생 차예절 경연대회'에 참가한 유치원 어린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정성스레 녹차 다구(茶具)를 다루고 있다. /보성=안구일기자 gjahn@

## 섬 폐교 수산물 유통센터 탈바꿈

고흥군 금산면 옛 명천초교 부지 1만4천㎡ 74억 들여 미역·다시마 가공공장 등 건립

고흥의 한 섬지역 폐교가 지역주민들의 소득기반 시설로 새롭게 태어난다.

고흥군은 국비와 지방비 등 74억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금산면 옛 명천초교 부지 1만 4천여㎡에 미역과 다시마를 가공하는 수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한다.

이 유통센터에는 3천100여㎡ 규모의 가공공장과 냉동 및 저온저장고, 포장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유통센터가 가동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해조류를 가공한 뒤 수출 및

## 강진 칠량면 구로마을 다목적 복지회관 준공

고니 도래지로 유명한 강진군 칠량면 구로마을에 다목적 기능을 갖춘 현대식 복지회관이 최근 준공됐다.

지난 7일에 착공한 구로마을 복지회관은 부지 1천612㎡, 연건평 231㎡으로 1억2천만 원이 투입됐다.

복지회관은 마을 축제를 비롯해 주민 센터 등 다양한 복지공간으로 활용된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 완도군·군수 '賞福 터졌네'

### 경영대상·존경받는 CEO 대상 등 을 지방자치 관련 각종 상 휩쓸어



의 옥성 ▲특색있는 관광 시책 추진 ▲대도시 특산물 판촉 전략 실행

김종식 완도군수(사진)와 완도군이 올해 지방자치와 관련된 각종 상을 휩쓸었다.

김 군수와 완도군은 올 상반기에 2007 지방자치 경영대상을 비롯해 ▲지방자치 발전대상 ▲지역 산업정책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올해의 브랜드대상 ▲지방행정연수대회 우수상 ▲공공혁신 전국대회우수상을 차지해 새·하반기 '트리플 크라운'의 영예를 안았다.

또 행정부 주관 제 2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역자원 경연대회에서 청산도 상서마을이 한국 대표 지역으로 선정됐고, 전국 10개 시·

도의 40여개 주요 해수욕장 평가 결과 신지 명사십리가 우수 해수욕장에 뽑혔다.

청산도는 올해 문화관광부의 '가고싶은 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이태리 슬로시티 국제연맹 총회에서 '슬로 시티'(Slow City)로 지정됐다.

특히 김종식 완도군수는 지난달 '2007년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과 11일 '대한민국 신뢰경영 CEO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김 군수는 ▲해양 생물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 성장동력 산업

해조류 직불제·수매사업 등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탁월한 경영역량을 발휘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종식 군수는 “온 국민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은 '완도 성장동력 발전의 해'로 정하고 경쟁력 강화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 마량항 토요일음악회 '내년에 봐요'

### 올해 총 27회 공연 성료... 지역 관광활성화 기여

올해 마지막 토요일음악회가 지난 8일 강진군 마량미항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사진>

이날 마량미항 토요일음악회에는 유명가수 공연과 감미로운 통기타 연주, 전통국악과 댄스 팀의 신명나는 어울림이 펼쳐졌다.

마량미항 토요일음악회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27회에 걸쳐 가요와 클래식,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으로 꾸며져

매 공연마다 300명 이상이 공연을 즐겼다.

지난 2006년 10월 어른과 어항이 복합된 관광지로 탈바꿈한 마량미항은 천연기념물 제 172호인 마량 개막섬과 마량~고금 간을 연결하는 연륙교가 개설돼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마량 토요일음악회는 내년 4월부터 재개된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 조손 가정 아이 돌보기 장흥군청 직원들 자매결연

장흥군청 공무원들이 할아버지·할머니와 생활하는 조손가정 아동들과 자매결연을 통해 이들을 돕고 있다.

장흥군청 6급이상 공무원들은 지난 8월 관내 조손가정 아동 111명과 1대1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후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장흥군청 공무원들은 매달 이들에게 음료수와 밀반찬 등을 제공하고 공부를 점검하는 등 다양한 도움의 손길을 펴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 '내고장 쌀 사주기 운동' 광산구, 기업체·업소 등

광산구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내고장 쌀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산구는 기관·단체는 물론 기업체와 대형마트, 요식업소, 아파트 단지 등 대량 소비처를 중심으로 '1가정 1포대 이상 내고장 쌀 사주기 운동'에 나섰다.

광산구는 올해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 3만8천포대(20kg들이)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해에도 관내에서 생산된 쌀 1만6천313포대를 판매한 바 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



대한민국 최초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태양, 바다, 그리고 제주도의 자연 경관은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제주도의 역사와 전통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 겨울 한라산 탐방 시은행사 】

겨울 한라산 탐방 시은행사는 겨울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행사는 겨울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UNESCO 세계자연유산 제주